



2017년 7월 9일(제831호) 연중 제14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연중 제14주일인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로부터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마태 11,28)라는 말씀을 듣게 됨으로써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나의 위치를 찾느라 아등바등 살아온 우리를 불러들이고 계십니다. 아마도 정처 없이 헤매고 앞만 보며 전투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안쓰러워 보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창조했던 ‘보시니 참 좋은 세상’이 그 본래의 아름다움을, 또 당신을 닮은 인간이 어느새 그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보고만 있을 수 없으셨나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마태 11,29) 곧 당신께서 창조한 이 세상이 또 당신을 닮은 우리가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당신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신앙생활만이 우리를 살리는(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 살도록 육에 빛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에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로마 8,12-13)라는 말씀을 전해 줌으로써 성령의 이끄심과 보호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루어질 때 분명 우리는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고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내 방, 내 침대에 누우면) 편안함을 느끼듯이, 어찌면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지치고 힘들 때 당신을 찾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님의 품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듯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육의 지배가 아닌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시작되고 완성될 수 있는 지혜와 은총을 청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전례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김진수(요셉) 신부
해군교육사(해군교육사) 생당 주임

그렇기에 오늘 두 번째 독서는 “우리는 육에

- 제 1 독 시** 즈카 9,9-10
회 답 송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제 2 독 시 로마 8,9.11-13
복음 본궤송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복 음 마태 11,25-30
영 성 제 송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주님께 바라는 사람!

진례를 살다

기도에 대하여 스페인에서 전해오는 아름다운 옛 이야기 한 토막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지방에 몇 년에 걸친 심한 가뭄에 밭이 말라가고 농작물이 타죽고, 우물이 메말라 식수조차 구하기 힘겨운 자연재해가 닥쳤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에 마을 사람들은 분당신부님을 찾아가 하느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9일 기도를 바치도록 청했습니다. 분당신부님은 신자들의 원의를 받아들여 가뭄을 해소시켜 주시길 간청하는 9일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 저녁 성당에 모여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바쳤습니다. 어느 집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어린 아들도 기도하러 성당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설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 아이가 문간에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성당 갈 때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아?”

아이의 눈에는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러 성당에 가는 사람들이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들어주신다는 순수한 믿음이 아이에게는 있는데 어른들에게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고난이 있는 현실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은총을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미사 중에 바치는 것이 바로 보편 지향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필요한 것을 발견하고, 기도가 응답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하느님께 다가갑니다. 보편 지향 기도에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와 문제들을 나눕니다. 보편 지향 기도는 전례마다 바뀝니다. 보편 지향 기도는 미사의 다른 부분과는 달리 신자들이 직접 작성합니다. 그날의 전례

보편 지향 기도

독서나 전례 시기, 또는 거행되는 축일이나 공동체의 직접적인 원의나 필요를 반영하는 내용을 기도에 담아 바칩니다.

보편 지향 기도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신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권장하는 의미로 1500여 년 만에 전례 안에 다시 복구되었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고 있기에 인류 성화를 위해 기도할 의무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이를 위한 구원 제사인 미사에서 하도록 한 것입니다. 보편 지향 기도는 개인적인 것을 청하는 사적기도가 아니라 하느님 은총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공동체에는 많은 차원이 있을 수 있기에 이 기도의 지향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바칩니다.(미사 경본 총지침. 69-71항)

1) 첫째 부분은 모든 교회를 위한 기도으로써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하느님의 백성이 된 사람, 즉 모든 신자, 교회 전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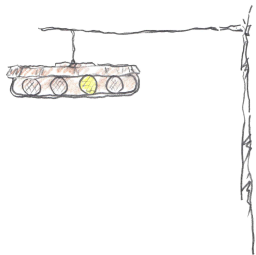
2) 둘째 부분은 전 인류로 시야를 넓혀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전 세계의 모든 민족, 국가, 각종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평화와 구원을 기원합니다.

3) 셋째 부분은 구체적이고 긴급한 필요를 위한 기도인데 모든 차원의 공동체를 위한 부분입니다.

4) 넷째 부분은 우리들의 공동체를 위한 것, 즉 본당이나 지역 공동체, 각종 단체 등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

최창덕 F.히비에르 / 대구교리신학원 원장
『대구대교구 ‘빛’ 집지 별책』

복 음 묵 상



- 배영길(비드로) 신부 / 예수회

대기하기

뛰고 싶은 마음
잠시 내려놓고
지친 걸음
잠시 쉴 수 있게
멈추고 기다리시오.
지금은
그래야 합니다.

상화이야기

부활하신 예수님



대리석처럼 눈부시게 흰 피부와 흰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 무덤의 석관을 닫고 일어서시며 당신의 부활을 널리 알리시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예수님이 입고 있는 의복도 마치 대리석 조각을 조각해놓은 것처럼 그려져 있다.

못으로 뚫린 오른손을 들어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계시며, 당신 뒤로는 빛과 후광이 가득 차 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 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마태 11,27)라고 하셨다. 부활하시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나, 우리가 그분의 빛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몫은 순전히 우리 몫일 수도 있겠다.

암브로지오 베르그네(1453-1523)
1490년 작, 패널 위 유화 114.5 × 61.3 cm
니셔널 갤러리, 워싱턴 D.C.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후원회 회원들을 위한 미사 - 연중 제14주일: 공군철성대 최권우 신부

- ◆ **대례사회 미사 및 모임**
 때: 7월 13일(목) 11:00
 곳: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 ◆ **군신교단 미사 및 모임**
 때: 7월 13일(목) 18:00
 곳: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 ◆ **‘군중의 시간’ 인니**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군(軍) 복음화, 새 열장으로” - “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